

도민과 문화예술 · 관광 특별한 미래 연다 “모방자에서 창안자로의 역할 필요”

전북특별자치도문화관광재단, 신년인사회 갖고 운영 방향 · 사업 계획 공유

전북특별자치도문화관광재단(대표이사 이경운)은 14일 전주 라한호텔에서 '2025년 문화예술 · 관광 신년인사회'를 개최했다고 밝혔다. 이날 재단에 따르면 설립 10주년을 맞아 '함께한 10년, 특별한 미래'라는 주제로 문화예술 · 관광인들과 인사를 나누고, 재단의 운영 방향과 사업 계획을 공유하는 자리로 마련됐다.

이번 신년인사회에서는 김관영 도지사, 문승우 도의장, 서거석 교육감, 최무연 전북예총 회장, 조오익 관공협회장 등 도내 문화예술 · 관광인 300여 명이 참석했다.

이경운 대표이사는 이 자리에서 재단 설립 10년 간의 변화와 1년간의 주요 성과, 그리고 2025년 추진 방향을 설명했다.

아울러, 행사 중 진행된 제2회 예술 · 관광상 시상식에서는 문화예술인의 창작의욕을 고취하고 관광산업의 동력을 제고하기 위한 취지로 수상자를 선정했다.

올해 수상자로는 나경운(기획자), 황유진(기획자), 박현재(시각), 임영희(시각), 안경일(공연), 우인택(공연), 이현주(공연), 조승철(공연), 이은경(정책), 조국형(특화산업육성), 어드(관광객유치), 바이르미(관광객유치) 등 12명이다.

신년인사회 참석자 전원은 '2036 하계올림픽 전북 유치'를 위한 단체 퍼포먼스를 펼치며, 전북의 문화예술 · 관광 발전과 올림픽 유치 열의를 담았다. 축하 공연으로는 예술 · 관광상 수상자인 안경일 씨가 지휘하는 장애인 앙상블 연주단 '느루걸음'이 감동적인 무대를 선보



전북특별자치도문화관광재단은 14일 전주 라한호텔에서 '2025년 문화예술 · 관광 신년인사회'를 개최했다.

여 행사의 의미를 더했다. 김관영 도지사는 "지난해 한인비즈니스대회를 성공적으로 개최하며, 전북의 문화적 역량을 세계에 알렸다. 특히 취타대, 기절놀이, 농악 어르신들이 손님 맞이하며 전북 문화의 힘을 보여준 순간이 인상 깊었다"며 "2036 하계올림픽 유치는 전북의 풍부한 문화자원을 세계에 알리고, 관광산업을 한 단계 도약하는 기회다. 모두가 힘을 모아 초지일관으로 전북의 백년대계를 준비하자"고 강조했다.

이경운 대표이사는 "함께한 10년을 발판삼아 전북특별자치도 문화예술 · 관광의 특별한 미래를 도민과 함께 만들어가겠다"고 말했다. /장은성 기자

이대영 원장, 전북 백년포럼서 21세기 문화정책 창안자 역할 주문

일과 놀이가 하나되는 비트시대를 구현하기 위해서는 놀이 속으로 들어가는 문화를 알아야 하고, 문화정책에 있어서 모방자에서 창안자로의 역할이 필요하다는 제언이 나왔다.

이대영 중앙대학교 예술대학원 원장은 14일 전북특별자치도 대회의실에서 열린 전북백년포럼 제23강 특강을 통해 "문화정책에서도 스토리텔링, 디자인, 표현, 공감, 감성, 배려, 이해, 놀이 등의 방법론이 중요하다"면서 이같이 밝혔다.

전북연구원 이만호 원장은 "문화 없이 발전 없다"를 주제로, 아날로그 시대에서 디지털 시대로의 변화가 사회와 개인의 가치관에 주는 변화를 살펴보고 놀이와 일의 경계가 허물어진 사회에서 문화정책을 통한 대응 전략에 대해 논의하기 위해 준비됐다.

이대영 원장은 "일과 놀이가 하나되는 비트

세상을 구현하기 위해서는 놀이 속으로 들어가는 문화를 알아야 한다"면서 이를 위해 생활 문화공동체 복원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그는 특히 "시원(始原)이 있어야 변형도 가능한 시대"라면서 "문화정책은 모방자에서 창안자로의 변화가 필요하다"고 설명했다.

전북연구원 이만호 원장은 "감성적 공감 문화의 시대로 변화해가고 있는 현 시점에 일과 놀이가 하나가 되는 비트시대에 맞는 정책 개발이 필요하다는 생각에 공감한다"며, "전북의 문화적 자원을 활용하여 전북연구원이 지속적으로 창안자의 역할을 수행할 수 있도록 연구와 지원을 지속해나갈겠다"고 밝혔다.

이번 포럼은 전북특별자치도가 주최하고 전북연구원과 전주상공회의소가 공동주관하였으며, 관련 실무부서 담당자, 출연기관 및 유관 기관 임직원 등이 참석했다. /이만호 기자

부안복합커뮤니티센터, '윤봉길 의사의 독립운동 이야기' 전시

부안복합커뮤니티센터와 독립기념관이 협력해 지난 13일부터 오는 2월 1일까지 20일간 '윤봉길 의사의 독립운동 이야기'를 전시한다. 이번 전시는 앞서 개최된 '국가상징 태극기 사진전'에 이은 독립기념관과의 두 번째 역사물 전시다.

지난해 12월 19일은 우리 민족의 독립 의지를 전 세계에 알린 청년의사 윤봉길 의사의 순국일이다. 그를 기억하고 부안군민과 센터 이용객들에게 나라사랑 정신 함양과 교육의 기회를 제공하고자 '국가상징 태극기 사진전'에 이어 이번 전시를 마련했다.

전시는 윤봉길 의사의 일대기를 비롯해 흥커우공원 의거 등 주요 독립운동 활동과 관련된 사진과 자료들을 총망라해 전시한다. 특히 청소년들의 역사 교육을 위해 관내



초 · 중 · 고등학생 대상으로 전시장 내 포토존을 마련해 방문한 청소년들이 포토존에서 사진을 촬영해 SNS에 업로드 하면 추첨을 통해 선물을 증정하는 이벤트도 진행한다.

관람은 부안복합커뮤니티센터 2층 전시실에서 무료로 진행되며 개관 시간인 오전 9시부터 오후 6시까지 누구나 관람할 수 있다. /부안=김석진 기자

'빈 소년 합창단' 익산 찾는다

18일 신년음악회 개최

깊은 역사와 전통을 자랑하는 보이 소프라노의 대명사 '빈 소년 합창단'이 8년 만에 익산을 찾는다.

익산시는 올해 527주년을 맞는 '빈 소년 합창단'이 오는 18일 오후 3시에 익산예술의전당 대공연장에서 신년음악회를 선보인다고 밝혔다. 빈 소년 합창단의 익산예술의전당 공연은 2017년 이후 8년 만이어서 더욱 뜻깊은 무대가 될 것으로 기대된다.

이번 공연은 올리버 슈테히(Oliver Stech)의 지휘에 맞춰 슈베르트 빈 소년들의 아름다운 목소리가 무대를 채울 예정이다.

프로그램은 요한 슈트라우스 2세의 '황제 왈츠'를 시작으로 성가곡, 가곡, 영화음악을

비롯해 민족의 한과 정서를 풀어낸 한국의 대표 민요 '아리랑' 등으로 구성된다. 합창을 통해 따스하고 순수한 메시지를 전하며 큰 위로와 소망을 선물한다.

'빈 소년 합창단'은 빈 필하모니 오케스트라, 빈 국립오페라단과 함께 빈 궁정악단의 명성을 잇는 전통이 깊은 합창단으로 세계 최고의 소년 합창단 중 하나로 손꼽힌다. 특히 500여 년이 넘는 역사 동안 무수한 음악가가 빈 소년 합창단을 거쳐 갔으며, 유네스코(UNESCO) 지정 무형유산으로 등재될 만큼 전통과 음악의 우수성을 인정받고 있다.

한국과도 깊은 인연을 자랑하는 빈 소년 합창단은 1969년 첫 내한 공연을 가진 후 지난 50년간 약 35개 도시에서 150회가 넘는 공연을 하며 최고의 스테디셀러 공연으로



로 사랑받아 왔다. 공연은 8세 이상 관람 가능하고 티켓은 R석 7만 원, S석 5만 원, A석 3만 원이다. 더욱 자세한 내용은 익산예술의전당 누리집과 전화(063-859-3254)로 확인할 수 있다. /익산=이재훈 기자

이정석 전북자치도 문화체육관광국장, 장수 문화유산 현장점검

장수군은 지난 13일 전북특별자치도 문화체육관광국 이정석 국장과 군 직원들이 흑한기를 맞아 장수군에 위치한 육십령, 삼봉리 가야고분군, 장수역사전시관 등을 방문해 현장점검을 실시했다고 밝혔다.

이정석 국장은 과거부터 우리나라를 동 · 서로 나누는 자연 경계인 백두대간을 넘어 동서회합과 상생의 상징으로 알려진 '육십령'의 역사적 의미를 담아 추진중인 장수군의 랜드마크 사업인 '동서회합 육십령가이오터' 조성사업의 진행 상황을 청취했다.

이어 전북특별자치도 기념물로 지정된 '삼봉리가야고분군'을 방문해 유적의 현황을 점검하고 올해 동부권 발전사업으로 진행되는 삼봉리고분군 보호호 설치가 성공적으로 추



진될 수 있도록 계획을 논의했다.

마지막으로 이 국장은 장수군 1호 공립박물관인 장수역사전시관을 둘러보며 박물관이 지역 역사성을 알리고 교육적 역할을 충실히 수행하고 있는 것에 감사를 표하며 지역을 대표하는 역사문화공간으로 확실히 자리매김할 수 있도록 더욱 노력해 줄 것을 당부했다. /장수=고관호 기자

전북의 역사 · 문화 유산

옛 전북의 구심점

전라감영

전라감영은 전라감사가 근무하는 관이라는 뜻으로, '완영'이라고도 불렀다. 완영이란 전주의 옛 지명 '완산'에서 나온 말이다.

조선시대 전라도는 지금의 전라남 · 북도와 제주도까지 포함한 지역으로, 이 모두를 총괄한 지방통치기관 전라감영은 조선왕조 500여년 내내 전주에 자리했다.

일제강점기에 들어와 전라감영 자리에 전북도청이 들어섰고, 2005년까지 전북 도청의 중심이 되었다.

전북도청은 행정만이 아니라 전북의 역사와 문화를 끌어온 전북의 구심점이자 견인차였다.



선화당

전라감영의 재창조

전라감영 복원 논의는 2005년 전북도청이 신시가지로 이전하면서 본격화돼, 2009년 전라감영 복원추진위원회가 구성됐고, 2014년 전라감영 복원 재창조위원회가 결성됐다. 복원을 앞두고 10여년간 계속된 지난한 논의의 핵심은 복원의 범위와 옛 전북도청의 근대문화유산으로서의 가치 문제였다.

복원 범위는 전체복원, 부분복원, 상징복원으로 나뉘었고, 옛 전북도청의 가치는 김영터의 중추적 역사에서 어느 역사를 택하느냐 하는 문제였다.

결국 감영의 중심건물인 감사의 집무처인 선화당을 비롯한 전라감사 영역을 복원하는 것으로 결정돼 2015년 마침내 옛 전북도청을 철거하고 2020년 동편 부지에 감영 건물을 복원했다. <글: 전주시 제공>

관풍각



내아



전주매일 캠페인